

소통으로 신뢰받는 의회 함께 만드는 행정수도 세종



세종 특별자치시의의회

보도자료

제공일자	2026. 9. 29.(화)	사진 · 영상	사진(○), 영상()
보도일자	2026년 9월 29일(화)부터		
제 공	세종특별자치시의의회 의원	정연희	☎044-300-7183

[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의회 정연희 의원, “10년 넘게 제자리인 조치원 제2청사 구축 이제는 실행할 때”

- 조치원 제2청사 추진으로 재정부담 완화·행정기능 분산·북부권 균형발전
견인하길...

세종특별자치시의의회 정연희 의원(조치원읍,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열린 제10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북부지역 주민들의 오랜 바람이자 세종시 균형발전을 위한 ‘조치원 제2청사’ 건립을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조치원 제2청사 건립은 2014년 시장 공약으로 제시된 이후 10년 넘게 논의됐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그 사이 본청에는 공간이 부족해 외부청사 임차를 지속했고, 이로 인한 재정 부담은 커지고 있다. 현재 4개 임차청사에 15개 부서, 354명의 직원이 분산 근무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임차료와 관리비 등 누적 지출액은 약 46억 6천만원에 달한다.

정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기반으로 “매년 상당한 임차비용을 반복

지출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조치원청사 등 기존 공공자산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시 공약 이행계획에 조치원 제2청사 추진이 반영된 만큼, 이전 대상 부서와 일정, 소요예산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 타 시도의 제2청사 운영 사례를 들어 세종시도 지역 여건에 맞는 행정기능 분산을 통해 균형발전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아래와 같은 두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조치원청사를 활용한 제2청사의 이전 규모와 단계별 추진계획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현재 외부 임차공간 규모를 고려할 때 조치원청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주변 시유재산을 추가 활용해 필요한 행정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둘째, 제2청사를 단순한 사무공간이 아닌 ‘행정·경제·공공 기능이 연계된 북부권 복합거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치원역세권 개발,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치원·오송 연계 20만 자족도시’ 구상과 연계해 북부권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지역발전을 뒷받침하는 핵심 거점으로 기능과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정연희 의원은 “조치원 제2청사는 단순한 청사 이전이 아니라 재정 부담을 줄이고 행정기능을 합리적으로 분산해 북부권 균형발전을 이끄는 정책사업”이라며 “이제는 계획을 넘어 구체적인 실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